

서경태 | IAEA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



## “You’re ired!”

**후** 돈의 세월이다. 격동의 세월이다. 이것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광복 때의 이야기도 아니고 좌우충돌로 인한 한국전쟁 때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글의 시작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간단명료하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책에서만 보고들은 아이엠에프(IMF)라는 단어가 매일 우리 주변에서 떠돌던 때가 십년 전이다. 온 나라에 난리가 났었다. 온통 망한다는 이야기 뿐이었다.

줄여라, 낮춰라, 빼라 등등 온통 네거티브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각자가 살아남기에 급급했기에 주변의 죽은 자, 다친 자, 병든 자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간단한 처방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다친 자, 병든 자들이 하나 둘씩 다 죽어갔다. 우리 주변이 변해갔다.

### 우리 사회의 변화 - 양극화

광풍이 지난 후 폐허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사람

들이 느끼지 못하는 변화가 남았다. 그 변화는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았다.

우리 사회가 찢어졌다. 여러 갈래도 아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양극화란 이름으로 이쪽저쪽 두 쪽으로 나누어졌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졌다. 좌와 우의 이념으로 갈라져 있던 우리 사회가 통합도 되기 전에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로 갈라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있는 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죽은 자들은 없는 자, 못 가진 자, 능력 없는 자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더욱 여유로워진 삶을 즐기게 되었고, 죽은 자들은 죽음보다 못한, 죽지 못해 사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변화는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다니는 회사로 나갈 뿐이다. 회사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나와 회사의 것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회사 것이라는 생각에 회사에다 다 털어

놓는 것은 요즈음 어린아이들도 비웃는 발상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필요할 때만 회사는 나를 찾을 테니까.

몸을 축내면서 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몸은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 자산이다. 쓸데없이 귀한 저녁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회식자리에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 나의 경쟁자들과 몸을 해치고 금쪽같은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살아남은 자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있으면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거나 전문 분야의 지식을 높이 쌓아놓는 것이 나의 스펙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이다.

나의 상사도 가문의 영광을 받은 오너가 아닌 다음에는 더 이상 더불어 같이 가는 존재가 아니다.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작은 언덕일 뿐이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세 세상은 언제나 환할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게 한다.

### 살아남은 자, 죽는 자

몇 십 년 전 삶의 모습을 다시 따라 하면서 복고풍 패션이란 이름으로 불리듯이 죽은 자들에겐 복고풍 바람이 불어 닥쳤다. 다 잊혀져가던 이름들인 실직자, 파산자, 노숙자 등이 무능력의 표상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아이콘, 이모티콘,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등 신기술과 새 직업들이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 같더니만, 신용불량자와 같은 새 이름이 나타나 죽은 자들을 땅 속으로 밀어 넣어 영원히 빛을 못 보게 한다.

사람의 모습, 생각, 능력 등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주관적인 관점의 대상이 아니다. 플라스틱 조각 하나로 인간을 판단한다. 지극히 객관적이고 공평하다.

같은 플라스틱 조각이라도 살아남은 자의 플라스틱은 진짜로 살아 움직여 빛을 발하는 생명체이고 죽은 자의 플라스틱은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이다. 아니다. 죽은 자의 플라스틱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

긴 한다.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니까.

살아남은 자는 삶을 오래오래 영유하고 싶다. 연봉도 꽤 올랐다. 가족들과 풍요로운 삶을 나누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 살아남은 자는 큰 집에서 살아야 하고 큰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살아남은 자로서 능력을 과시하여야 하니까.

집값이 마구 올라간다. 그래서 즐겁다. 큰 집과 큰 차를 유지하는 데에도 문제없다. 집값이 때때로 연봉 이상으로 올라주니까. 과거에는 정년을 맞이하면 목돈을 쥐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수익 되는 집값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살아남는 능력을 심어주고 싶다. 이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기러기 가족도 상관없다. 아이들이 불평 없이 따라와 준다. 당연하다. 그들은 살아남은 자의 자식들이니까.

죽은 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 가족도 이미 뿔뿔이 흩어져 걱정할 가족들도 없다. 하루하루 자신이 버틸 것만 생각하면 된다.

곳곳에 공짜 음식이 있다. 질과 양은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공짜다. 동사무소에 쌀자루가 쌓여 있지만, 죽은 자에겐 다 귀찮기만 하다. 사실 밥 해먹을 도구도 자리도 없다. 지하철이든지 역 대합실이든지 간에 그냥 누우면 그곳이 집이다.

### 다치고 병든 '보통사람들'

그런데 우리 사회 아니, 한국 사회에는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친 자, 병든 자가 더 많다. 보통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그들이 다치고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으로 착각한다. 가끔 몸에 이상이 있음을 자각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라고 생각한다.

진짜로 살아남은 자들과 똑같은 부류로 생각한다. 살아남은 자와 같이 큰 집에 살아야 하고 큰 차를 타야만 마음이 편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남은 자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신은 살아남은 자와 똑같이 살 수가 없

다. 이미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도 변두리에 있는 큰 집에 살고 중고라도 큰 차를 타고 다닌다. 가끔 아프기는 하지만, 낮기만 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가끔씩 아픈 병은 곧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들도 살아남은 자의 아이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 빛을 내고 파출부를 하는 등 무리를 해서라도 대학 공부는 시켜야 한다.

다친 자와 병든 자는 자신의 병이 깊어가 조만간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은 자들에 대해 손가락질을 한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보다는 병든 자들 주위에서 더욱 눈에 잘 띄니까. 이러면서 십년의 세월이 다시 흘렀다.

### 혼돈의 세월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세상이 다시 혼돈으로 빠져 들었다. 십년 전 같이 아이엠에프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지는 않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식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살아남은 자도 병든 자도 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병든 자는 병을 고치려 하지 않고 방치하여 거의 죽은 자가 되었고 살아남은 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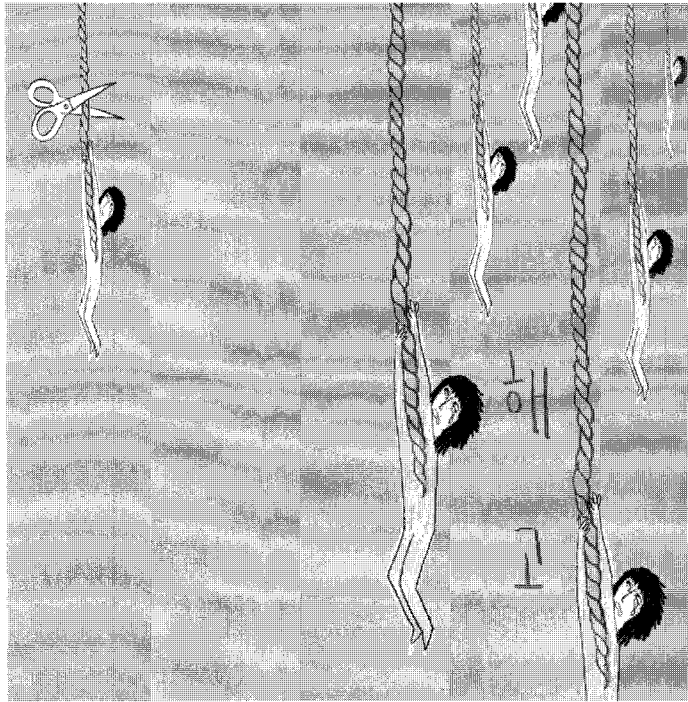
십년 전에는 외국의 큰 손들이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큰 손들이 숨죽이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기름값도 환율도 주식도 예상과는 달리 오르내리니 어쩔 줄을 모른다. 널 뛰는 주식 때문에 몇 달치 월급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회사들은 다시 줄이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월급을 줄이고 인원수를 줄인다고 호들갑을 떠난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지난 십년동안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이라는 안전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은 오늘의 혼돈도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다만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제 병든 자들은 더욱 더 갈 곳이 없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비정규직 자리



“젊은이들이여, 너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말라.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 보라.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열여덟” 소리가 고막에 찔릴 때마다 심장(Heart)에 바늘이 꽂히는 아픔을 느껴라. 에프 자를 멀리 하고 에취 지는 가까이 해 보라. 에프 자를 싫어하고 에취 자를 좋아하게 되면 어느날 갑자기 “You’re Hired!” 라는 통보를 받게 될 테니까.”

라도 꿰차고 안심하던 자신을 원망해야 소용없다.

대학 공부만 시키면 치유된 삶을 살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들도 갈 곳이 없어 방황한다. 수십만의 젊은 인생들이 이력서를 들고 길거리를 헤맨다. 싱싱했던 몸뚱이들이 점점 병들어 간다.

문제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뻘뻘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작은 회사들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지만 젊은 인생들은 눈높이를 낮추기 보다는 길거리 헤매기를 선택한다. 명색이 대졸인데 작은 회사나 3D에 종사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환상 속에 산다.

이것이 2009년 봄, 한국이다. 아니 한국 바깥에서 듣고 간간이 엿본 나의 조국, 한국의 모습이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많은 분들이 헛소리라고 집어치우라고 외친다면 정말 다행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주절주절 늘어놓아서 죄송하다.

You’re ired!에 들어갈 말은?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로 된 퀴즈를 하나 내어 보겠다.

You’re ired! 네모 칸에 어떤 글자를 넣으면 문장이 이루어질까? 답은 두 가지 이상이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신 당신은 답을 손쉽게 찾아냈을 것이다.

최근에 만든 미국 영화에는 에프 자가 들어가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특히 전쟁 영화나 폭력을 다룬 영화는 에프 자가 없으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될 지경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퍽퍽퍽”이다. 시도 때도 없이 “퍽퍽퍽” 우리 고막에 잽을 날린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퍽퍽퍽” 잽을 맞고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 우리 고막은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도록 이미 멎들어 있으니까.

미국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일부 한국인들이 어쭙잖게 미국 영화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는 비속어를 마구 쓴다. “퍽퍽퍽”.

그런데 “퍽퍽퍽”하면 이해를 못할까 친절히 번역을 하였다. “열여덟열여덟열여덟” 요새 한국영화를 보면 열여덟이라는 말이 안들어가면 소통이 안되는 것 같다. 열여덟이라는 말을 빼고 나면 대사가 몇 마디 안된다.

대사가 몇 마디 안되니 배우의 연기력이나 대사 전달 능력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베에 왕자만 새기고 에스 라인만 만들어 벗어젖히면 된다. 그러면서 열여덟만 외치면 정신 나간 한국인들은 기록을 손쉽게 경신을 해준다. 천만 관객 돌파, 천 오백만 관객 기록 등등.

사람들은 “퍽퍽퍽” 고막에 잽을 맞아 병들어 가면서도 즐거워한다. 자신도 모르게 “열여덟” 소리를 입으로 내뱉으면서 자신들이 기록 경신에 일조를 했다고 즐거워한다.

하지만 너무나 에프 자를 좋아하지 말기를 바란



안되십니까?  
불가능 하시다고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도전과 노력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다. 에프 자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You’re Fired!” 되어 그나마 영화 구경도 할 수 없게 된다.

“You’re Hired!”

젊은이들이여, 너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말라.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 보라.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열여덟” 소리가 고막에 잽을 날릴 때마다 심장(Heart)에 바늘이 꽂히는 아픔을 느껴라.

주위의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보다는 마음(Heart)에서 용솟음치는 뜨거운 분노를 느껴보라.

벌거벗은 에스라인에 광분하지 말고 부모님의 가슴(Heart)에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꽂아 드려라.

에프 자를 멀리 하고 에취 자는 가까이 해 보라. 에프 자를 싫어하고 에취 자를 좋아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You’re Hired!”라는 통보를 받게 될 테니까. ❀